

2024
EBS
수능특강

2024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9 | 소리의 빛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파란 글씨는 사용설명서 설명, 빨간 글씨는 그 외 설명과 기출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자가 이윽고 뭔가 사내를 달래듯한 목소리(술손 사내의 과거를 ___하는 여인의 태도)로 말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녀 앞에 안고 있던 북통과 장단 막대를 말없이 사내 앞으로 밀어 놓았다(여자가 소리를 하기 위해 ___을 맞춰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리를 청해 들을 양(___이 여자에게 소리를 청했음을 알 수 있음.)이면 이제부터 장단을 좀 잡아 달라는 시늉이었다.]([]: 북통과 장단 막대를 ___ 앞으로 밀어 놓은 이유, 윗글의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북통과 장단 막대를 사내 앞으로 밀어 놓은 이유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소리를 청해 들을 만한 사람에게겐 흔히 해 온 일이었다(술손 사내가 오라비임을 알고 술손 사내에게만 한 행동은 아니지만, 결국 북장단을 통해 ___임을 알게 됨.). 여자는 으레(두말할 것 없이 ____. 틀림없이 언제나) 손님의 숨씨를 믿는 얼굴이었다.

여자의 갑작스런 주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사내 쪽이 뜻밖인 모양이었다. 여자가 밀어 보낸 북통을 앞에 한 사내의 눈길엔 졸지에 일을 당하고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여자가 갑자기 ___을 쳐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___를 떠나 이후 북장단을 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일치 문제에 여자의 갑작스런 부탁에 술손 사내는 당황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여자의 눈길은 거의 일방적으로 손님을 강요해 오고 있는(해당 부분의 문맥상 의미를 묻는 문제에 ‘손님의 ___와 상관없이 북장단을 요구하는’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식이었다.

“하두 오래 손을 잡아 본 일이 없어서…….(손님은 북채잡이조차 하고 싶지 않아 ___와 ___를 떠났음. 북장단을 쳐 달라는 여자의 부탁에 술손 사내가 ___한 이유) 내 장단이 자네 소리에 잘 맞아들지 모르겠네…….”

사내도 마침내는 여인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천천히 자기 앞으로 북통을 끌어당겨 갔다(___의 소리에 북장단을 쳐 주기로 함).

▶ ___에게 장단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___

[그로부터 여자와 술손(술을 마시려고 오는 사람, ‘사내’를 의미하며 여인의 ___를 의미함.)은 다시 소리로 꼬박 밤을 지새듯 하였다.]([]: 두 사람이 ___간임을 암시함. 내용 일치 문제에 술손 사내와 여자는 소리로 밤을 지새웠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여자는 이제 숨이 짧은 단가에서 본격적인 판소리 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아 나갔다(여자가 주도적으로 ___를 하며 손님의 ___을 이끌어 나갔다는 의미, 해당 부분의 문맥상 의미를 묻는 문제에 ‘손님이 치는 북 장단 소리를 무시하고 소리를 이어 나갔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썩대머리(___이 마구 흐트러져 어지럽게 된 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 한 자리에서부터 <춘향가>(___5마당 중 하나,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가 판소리 5마당에 해당함.)의 옥중비가 한 대목을 넘어가고, <흥보가> 중의 흥보 매품팔이(예전에. 관가에 가서 남의 ___를 대신 맞아 주고 샅을 받던 일)며 신세 한탄 늘어놓는 진양조(민속 음악에서 쓰는 판소리 및 산조 장단 중 하나로, 24박 1장단의 가장 ___속도) 한 가락을 엮어 내고, <수궁가>로 <적벽가>로 명인 명창들의 이름난 더늠(판소리에서. ___이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듬어 부르는 어떤 마당의 한 대목)들을 두루 불러 돌아간 후에, 나중에는 <심청가>의 심 봉사 황성길 찾아

가는 처량한 정경까지 끈질기게 소리를 이어 나갔다.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다. 여자의 목청은 남정네들의 그 켄켄하고 **장중한(장엄하고 ___가 있는) 우조(羽調)뿐 아니라 여인네 특유의 맑고 고운 계면조(界面調)풍도 함께 겸비(뛰어난 ___인 여자)하고 있어서, 때로는 바위처럼 우람하고 도저한 기백이 솟아오르는가 하면(여자의 소리를 ___에 비유하여 여자가 내는 소리의 대단함을 나타냄.)** 때로는 **낙화처럼 한스럽고(여자의 소리를 ___에 비유하여 여자가 내는 소리의 한을 나타냄.)** 가을 서릿발처럼 섬뜩섬뜩한 귀기(**___이 나타날 것 같은 무시무시한 기운**)가 넘쳐 났다. **가파른 절벽을 넘고 나면 유장한 강물이 산야를 걸쳐 있고, 사나운 폭풍의 한밤이 지나고 나면 새소리 무르익는 꽃 벌판의 한나절이 펼쳐졌다.(여자가 내는 소리를 ___으로 표현함.)**]([]: 여자의 소리가 훌륭함을 ___인 표현과 ___평가를 곁들여 서술함. ___을 활용하여 여자가 내는 소리를 표현하고 있음.) >< >: 서술상의 특징 -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위를 ___으로 전달함. 해당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 때 적절한 설명을 고르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전달함.'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___의 놀라운 ___

놀라운 것은 그 지칠 줄 모르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술손의 장단 가락 솜씨 또한 예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___의 솜씨도 예사롭지 않음.).**

[- 춘향이 옥중가 한 대목이 어떠시오.

- 흥부가 매품팔이 나가는 신세타령 한 대목이 어떠시오?]([]: 여자가 손님에게 하는 말을 ___를 활용하지 않고 드러냄.)

여인은 소리를 한 대목씩 시작할 때마다 번번이 손님에게 의향을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손님도 '그거 좋겠네, 그거 좋겠네.', 즐겁게 화답을 보내며 여자가 첫소리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장단 가락을 잡아 나가곤 했다(여자의 소리에 ___한 듯 북장단을 치는 술손 사내).** 느리거나 빠르거나 여자의 소리만 시작되면 사내는 마치 **장단을 미리 외우고 있었던 것처럼 솜씨가 익숙했다(두 사람이 이전에 소리와 장단을 ___적이 있는 사람임을 짐작하게 함. → 들의 사이가 ___임을 암시함. 윗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연출가의 지시를 묻는 문제에 '여자가 어떤 소리를 하든 술손 사내는 당황하지 않고 북장단을 내줘야 하니 평온한 표정으로 연기해 달라고 해야겠군.'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고 여자고 새삼스레 상대방의 솜씨를 놀라워하는 빛은 전혀 서로 내색을 하지 않았다(이미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___할 수 있음. 윗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연출가의 지시를 묻는 문제에 '여자와 술손 사내는 서로의 솜씨에 놀라야 하니 솜씨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란 표정으로 연기해 달라고 해야겠군.'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여인과 손님은 끊임없이 소리를 하고 장단을 몰아 나갈 뿐이었다.

[어이 가리 어이 가리 황성만리를 **어이 가리('어이 가리'라는 단어를 ___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오늘은 가다 어데 가 자며 내일은 가다 어데 잘고.....(잘 곳 없이 황성으로 향하는 심 봉사의 ___가 드러남.)

더듬더듬 더듬으며 정향 없이 올라갈 제

때는 **삼복증염(삼복 기간의 몹시 심한 ___)이라 별빛은 불꽃 같고 땀은 흘러 비 같은데.....(___표현을 활용하여 '삼복증염'의 더위를 표현함.)**]([]: 정처가 없는 사람의 처지와 정서가 드러나 있는 구절로, ___들의 애환을 담고 있음. 심 봉사가 황성길을 찾아가는 처량한 정경을 드러냄.)

[여자는 소리를 **굴렀다가 깎았다 멧었다가 풀었다 하면서 온갖 변화무쌍한 조화를 이끌어 냈고(소리를 ___하게 다루는 여인의 뛰어난 솜씨),** 손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장단을 던지 않고 교묘하게 그 사이를 **빠져 넘나드는가 하면, 때로는 장단을 건너가는 엇붙임을 빚어내어 그 솜씨를 마음껏 즐기게 하였다(여자가 내는 소리의 ___을 표현함.).**

그것은 마치 소리와 장단이, 서로 몸을 대지 않고 능히 상대방을 즐기는 음양 간의 기막힌 희롱과도 같은 것

이었고, **희롱**이라기보다는 **그 몸을 대지 않고 소리와 장단의 기묘하게 틈이 없는 포옹과도 같은 것(소리와 장단의 조화: 두 사람 사이의 깊은 _____ 교감을 드러냄. 윗글의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소리와 장단의 조화로, 여자와 사내 사이의 깊은 정신적 교감을 드러낸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이었다.

1([]: 여자와 손님이 소리를 통해 _____ 하고 있음을 보여 줌.)

▶ _____ 을 보여 주는 여자의 소리와 손님의 장단

(중략)

“그렇습니다. 간밤엔 제 **오라비(_____)**를 만났더랍니다.”

주인 사내(= _____ 사내, 여자가 머무는 곳의 주인임.)는 **비로소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 고개를 한 차례 크게 끄덕이고 나서(윗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연출가의 지시를 묻는 문제에 ‘여자에게 오라비를 만났다는 애기를 들은 천씨 사내는 뭔가 알겠다는 듯 크게 놀라지 않은 _____ 을 지어달라고 해야겠군.’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질문의 꼬리를 이었다.

“하기야 나도 **간밤부터 뭔가 심상찮은 느낌이 없지 않았adne(두 사람이 밤새 복장단에 소리를 한 것에 대한 _____ 의 느낌)**. 하지만 **자넨 여태까지 한 번도 오라비 이야 길 한 일이 없었는데…….**(여자가 주인 사내에게 자신의 _____ 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 그렇다면 **그때 그 산소리가 저녁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서 공밭 여자에게 아이를 배게 하여 낳은 핏덩이가 바로 자네였더라** 말인가?(간밤에 _____ 이 여자에게 해 준 이야기를 _____ 사내가 엿들음.)”

천씨 사내(_____ 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도록 돕는 인물, <보기>에 속미인곡을 제시하고 윗글과 <보기>의 유사한 인물과 그 이유를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천씨 사내’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는 간밤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은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서슴없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여자(자신의 _____ 이야기를 털어놓음.)가 다시 분명하게 대답했다. 사내 앞에선 이제 아무것도 이야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오라비는 어젯밤 일부러 **그 핏덩이(‘_____’)**가 계집아이였다는 말씀은 참아 버리셨소. 그 **소리꾼 노인(여자의 _____ 이자 손님의 _____ 아버)**이 **어린 핏덩이를 싸안고 마을을 떠날 때 어린 당신도 길을 함께하고 있던 일까지…….**(오라비(_____)는 어린 핏덩이(_____)와 길을 함께하고 있었으나 이를 말하지 않음. → **자신(술손 사내)이 여자의 _____ 입을 숨김.)** 오라비는 제 기억이 안 달을만한 일만 말하시고 기억이 살아 있는 뒷날 일은 입을 덮고 마시더이다. 1([]: 사내 역시 _____ 이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 하지만 전 알고 있었더랍니다.”

▶ _____ 에게 간밤에 오라비를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여자

그러고 나서 여자는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옛날 일 몇 대목을 사내 앞에 조용히 털어놓았다(과거 _____ 이 드러남. → _____ 구성, 윗글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소리꾼 아버지는 나 어린 오누이를 앞세우고 **이 마을 저 마을 소리로 끼니를 빌고 떠돌아다녔더라고 했다(_____ 인생을 살았던 기억을 떠올림.)**.

그러면서 아버지는 철도 들기 전의 **두 어린것들(_____ 와 _____)**에게 소리를 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던지, 틈만 나면 성화가 대단했었다. 산길을 가다 고갯마루 같은 곳에 다리를 쉬고 앉아 있을 때나 어느 마을 사랑재의 헛간 같은 골방 속에 들어앉아 지낼 때나 **아버지는 한사코 어린것들에게 소리를 배워 주려 애를 쓰고 있었다(_____ 를 알려 주기 위해 노력함.)** 했다. 하지만 **오라비는 웬 고집으로 끝끝내 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고(손님은 의붓아버가 소리를 가르쳐 주려 한 것을 자신의 _____ 로 거부함. _____ 가 의붓아버 때문에 돌아갔다고 생각한 오라비의 원한의 표현),** 어린 그녀만이 무슨 재간이 좀 뻥뻥던지 **세월 따라 조금씩 소리를 익혀 가고 있었다(오라비와 달리 소리를 배우며 익혀 가는 _____ 고 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마침내 그녀에게만 소리를 하게 했고, **소리를 싫어하는 오라비에게는 복장단을 익히게 하여 제 누이의 소리를 짚어 나가게 했다는 것이다(손님**

이 여자의 소리에 _____을 맞춰 줄 수 있었던 이유). **아버지 소리꾼이 데리고 다니는 오누이의 소리 솜씨는 한동안 시골 마을 사람들의 애깃거리가 되곤 할 정도가 되었다(누이의 소리 솜씨와 오라비의 북장단 솜씨가 _____.** **윗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에 어린 시절 아버지 소리꾼을 따라다니던 누이의 소리 솜씨와 오라비의 북장단 솜씨는 뛰어났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라비는 끝내 그 북채잡이조차도 따르기가 싫었던 모양이다(의붓아버지에 대한 원한으로 인한 _____)**.]([]: **오라비가 떠난 _____를 추측함.**) 어느 해 **가을 날(여자와 오라비가 이별한 _____ 배경)**인가, 인적 드문 산길을 지나가던 아버지가 통곡이라도 하듯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수궁가> 한 대목을 처연스럽게 뽑아 넘기고 나서 기운이 파해 드러누워 있을 때, **오라비는 용변이나 보러 가듯 숲속으로 들어가고 나선 영영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말았다(손님이 스스로 _____을 떠났음을 알 수 있음. 의붓아버지에 대한 _____으로 누이를 버리고 떠남.)**는 것이다. >< >: 서술상의 특징 - 서술자가 특정 인물이 말한 내용을 _____으로 전달함.)

“**오라비가 가고 난 후 노인네는 아마 딸년마저 도망질을 칠까 봐 겁이 나지 않았겠소. 그래 아버지는 딸의 눈을 멀게 한 거랍니다.(여자가 _____이 멀게 된 이유, 도망친 오라비를 보고 딸은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_____으로 눈을 멀게 함.)**”

▶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이야기하는 여자

여자는 비로소 **한숨 섞인 음성(자신의 기구한 삶에 대한 _____)**으로 눈이 멀게 된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죽이고 나니까 그 죽은 눈빛이 다시 목청으로 살아났던지 그녀의 소리는 윤택해지고(소리를 매개로, 한이 _____적으로 _____함을 짐작할 수 있음. 눈이 멀게 되어 쌓인 _____이 소리에 담기면서 좋은 소리를 내게 됨.)**, 그 덕분에 부녀는 오라비가 걸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힘들이지 않고 이 고을 **저 고을로 구걸 유량을 계속해 다닐 수 있었다고 했다(_____ 인생을 산 여자)**. 그리고 그럭저럭 **환갑길에 들어선 노인(소리꾼 _____)**이 어느 겨울날 저녁 보성 고을 근처 한 헛간 같은 빈집에서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아버지는 자신이 죽기 전 _____을 밝힘.)** 아버지는 비로소 그녀가 모르고 있던 몇 가지 비밀—**그녀와 그녀의 달아난 오라비 사이의 어정쩡한 인륜 관계(여인이 오라비의 _____임을 밝힘.)** 하며 [잠든 딸에게 **청강수(_____을 달리 이르는 말)**를 찍어 넣어 그녀의 눈을 멀게 한 **비정스런 아버지의 업과(윗글의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눈먼 여자를 홀로 두고 죽는 아버지의 업과를 의미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윗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에 아버지 소리꾼은 딸마저 도망칠까 봐 _____으로 딸의 눈을 멀게 하였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들을 눈물로 사죄하고 갔다는 것이다.

▶ _____으로 윤택해진 여자의 _____와 아버지의 _____

지문 확인 답

여자가 이윽고 뭔가 사내를 달래듯한 목소리(술손 사내의 과거를 이해하는 여인의 태도)로 말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그녀 앞에 안고 있던 복통과 장단 막대를 말없이 사내 앞으로 밀어 놓았다(여자가 소리를 하기 위해 복장단을 맞춰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리를 청해 들을 양(손님이 여자에게 소리를 청했음을 알 수 있음.)이던 이제부터 장단을 좀 잡아 달라는 시늉이었다.]([]: 복통과 장단 막대를 사내 앞으로 밀어 놓은 이유, 윗글의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복통과 장단 막대를 사내 앞으로 밀어 놓은 이유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소리를 청해 들을 만한 사람에겐 흔히 해 온 일이었다(술손 사내가 오라비임을 알고 술손 사내에게만 한 행동은 아니지만, 결국 복장단을 통해 오라비임을 알게 됨.). 여자는 으레(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틀림없이 언제나) 손님의 숨씨를 믿는 얼굴이었다.

여자의 갑작스런 주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사내 쪽이 뜻밖인 모양이었다. 여자가 밀어 보낸 복통을 앞에 한 사내의 눈길엔 즐지에 일을 당하고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여자가 갑자기 복장단을 쳐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의붓아비를 떠나 이후 복장단을 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일치 문제에 여자의 갑작스런 부탁에 술손 사내는 당황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여자의 눈길은 거의 일방적으로 손님을 강요해 오고 있는(해당 부분의 문맥상 의미를 묻는 문제에 '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장단을 요구하는'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식이었다.

“하두 오래 손을 잡아 본 일이 없어서…….(손님은 복채잡이조차 하고 싶지 않아 의붓아비와 여자를 떠났음. 복장단을 쳐 달라는 여자의 부탁에 술손 사내가 당황한 이유) 내 장단이 자네 소리에 잘 맞아들지 모르겠네…….”

사내도 마침내는 여인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천천히 자기 앞으로 복통을 끌어당겨 갔다(여인의 소리에 복장단을 쳐 주기로 함.).

▶ 사내에게 장단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여자

[그로부터 여자와 술손(술을 마시려고 오는 사람, '사내'를 의미하며 여인의 이복 남매를 의미함.)은 다시 소리로 꼬박 밤을 지새듯 하였다.]([]: 두 사람이 남매간임을 암시함. 내용 일치 문제에 술손 사내와 여자는 소리로 밤을 지새웠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여자는 이제 숨이 짧은 단가에서 본격적인 판소리 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아 나갔다(여자가 주도적으로 판소리를 하며 손님의 복장단을 이끌어 나갔다는 의미, 해당 부분의 문맥상 의미를 묻는 문제에 '손님이 치는 복 장단 소리를 무시하고 소리를 이어 나갔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썩대머리**(머리털이 마구 흐트러져 어지럽게 된 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 한 자리에서부터 <춘향가>(판소리 5마당 중 하나,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가 판소리 5마당에 해당함.)의 옥중비가 한 대목을 넘어가고, <흥보가> 중의 흥보 **매품팔이**(예전에. 관가에 가서 남의 매를 대신 맞아 주고 값을 받던 일)며 신세 한탄 늘어놓는 **진양조**(민속 음악에서 쓰는 판소리 및 산조 장단 중 하나로, 24박 1장단의 가장 느린 속도) 한 가락을 엮어 내고, <수궁가>로 <적벽가>로 명인 명창들의 이름난 **더늠**(판소리에서. 명창이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듬어 부르는 어떤 마당의 한 대목)들을 두루 불러 돌아간 후에, 나중에는 <심청가>의 심 봉사 황성길 찾아가는 처량한 정경까지 끈질기게 소리를 이어 나갔다.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다. 여자의 목청은 남정네들의 그 쿵쿵하고 **장중한**(장엄하고 무게가 있는) **우조**(羽調)뿐 아니라 여인네 특유의 맑고 고운 **계면조**(界面調)풍도 함께 **겸비**(뛰어난 소리꾼인 여자)하고 있어서, 때로는 **바위처럼 우람하고 도저한 기백이 솟아오르는가 하면**(여자의 소리를 바위에 비유하여 여자가 내는 소리의 대단함을 나타냄.) 때로는 **낙화처럼 한스럽고**(여자의 소리를 낙화에 비유하여 여자가 내는 소리의 한을 나타냄.) 가을 서릿발처럼 섬뜩섬뜩한 **귀기**(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무시무시한 기운)가 넘쳐 났다. **가파른 절벽을 넘고 나면 유장한 강물이 산야를 걸쳐 있고, 사나운 폭풍의 한밤이 지나고 나면 새소리 무르익는 꽃벌판의 한나절이 펼쳐졌다.**(여자가 내는 소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함.)]([]: 여자의 소리가 훌륭한 비유적인 표

현과 주관적 평가를 곁들여 서술함. **직유법을 활용하여 여자가 내는 소리를 표현하고 있음.** >< >: 서술상의 특징 -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전달함. **해당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 때 적절한 설명을 고르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전달함.’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여자의 놀라운 소리

놀라운 것은 그 지칠 줄 모르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술손의 장단 가락 숨씨 또한 예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내의 숨씨도 예사롭지 않음.)**.

[- 춘향이 옥중가 한 대목이 어떠시오.

- 흥부가 매품팔이 나가는 신세타령 한 대목이 어떠시오?]([]: **여자가 손님에게 하는 말을 따옴표를 활용하지 않고 드러냄.**)

여인은 소리를 한 대목씩 시작할 때마다 번번이 손님에게 의향을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손님도 ‘그거 좋겠네, 그거 좋겠네.’, **즐겁게 화답을 보내며 여자가 첫소리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장단 가락을 잡아 나가곤 했다(여자의 소리에 익숙한 듯 북장단을 치는 술손 사내).** **느리거나 빠르거나 여자의 소리만 시작되면 사내는 마치 장단을 미리 외우고 있었던 것처럼 숨씨가 익숙했다(두 사람이 이전에 소리와 장단을 맞춘 적이 있는 사람임을 짐작하게 함. → 둘의 사이가 오누이임을 암시함. 윗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연출가의 지시를 묻는 문제에 ‘여자가 어떤 소리를 하든 술손 사내는 당황하지 않고 북장단을 내줘야 하니 평온한 표정으로 연기해 달라고 해야겠군.’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고 여자고 새삼스레 상대방의 숨씨를 놀라워하는 빛은 전혀 서로 내색을 하지 않았다(이미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윗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연출가의 지시를 묻는 문제에 ‘여자와 술손 사내는 서로의 숨씨에 놀라야 하니 숨씨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란 표정으로 연기해 달라고 해야겠군.’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여인과 손님은 끊임없이 소리를 하고 장단을 몰아 나갈 뿐이었다.

[어이 가리 어이 가리 황성만리를 **어이 가리(‘어이 가리’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오늘은 가다 어데 가 자며 내일은 가다 어데 잘고……(잘 곳 없이 황성으로 향하는 심 봉사의 처지가 드러남.)

더듬더듬 더듬으며 정향 없이 올라갈 제

때는 **삼복증염(삼복 기간의 몹시 심한 더위)이라 별빛은 불꽃 같고 땀은 흘러 비 같은데……(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삼복증염’의 더위를 표현함.)**]([]: **정처가 없는 사람의 처지와 정서가 드러나 있는 구절로,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음. 심 봉사가 황성길을 찾아가는 처량한 정경을 드러냄.**)

[여자는 소리를 굴렀다가 깎았다 멧었다가 풀었다 하면서 온갖 변화무쌍한 조화를 이끌어 냈고(**소리를 변화무쌍하게 다루는 여인의 뛰어난 숨씨**), 손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장단을 던지 않고 교묘하게 그 사이를 빠져 넘나드느가 하면, 때로는 장단을 건너가는 엇불임을 빚어내어 그 숨씨를 마음껏 즐기게 하였다(**여자가 내는 소리의 대단함을 표현함.**)

그것은 마치 소리와 장단이, 서로 몸을 대지 않고 능히 상대방을 즐기는 음양 간의 기막힌 희롱과도 같은 것이었고, **희롱이라기보다는 그 몸을 대지 않고 소리와 장단의 기묘하게 틈이 없는 포옹과도 같은 것(소리와 장단의 조화: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정신적 교감을 드러냄. 윗글의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소리와 장단의 조화로, 여자와 사내 사이의 깊은 정신적 교감을 드러낸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이었다.]([]: **여자와 손님이 소리를 통해 교감하고 있음을 보여 줌.**)

▶조화로움을 보여 주는 여자의 소리와 손님의 장단

(중략)

“그렇습니다. 간밤엔 제 **오라비(술손 사내)**를 만났더랍니다.”

주인 사내(=천씨 사내, 여자가 머무는 곳의 주인임.)는 비로소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 고개를 한 차례 크

게 고덕이고 나서(윗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연출가의 지시를 묻는 문제에 ‘여자에게 오라비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은 천씨 사내는 뭔가 알겠다는 듯 크게 놀라지 않은 표정을 지어달라고 해야겠군.’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질문의 꼬리를 이었다.

“하기야 나도 **간밤부터 뭔가 심상찮은 느낌이 없지 않았adne(두 사람이 밤새 복장단에 소리를 한 것에 대한 천씨의 느낌)**. 하지만 **자넨 여태까지 한 번도 오라비 이야 길 한 일이 없었는데…….**(여자가 주인 사내에게 자신의 오라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 그렇다면 **그때 그 산소리가 저녁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서 **콩밭 여자에게 아이를 배게 하여 낳은 핏덩이가 바로 자네였더라** 말인가?**(간밤에 손님이 여자에게 해 준 이야기를 천씨 사내가 엿들음.)”

천씨 사내(여자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도록 돕는 인물, <보기>에 속미인곡을 제시하고 윗글과 <보기>의 유사한 인물과 그 이유를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천씨 사내’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는 간밤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은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서슴없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여자(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음.)가 다시 분명하게 대답했다. 사내 앞에선 이제 아무것도 이야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오라비는 어젯밤 일부러 **그 핏덩이(‘여자’)가 계집아이였다는** 말씀은 참아 버리셨소. 그 소리꾼 **노인(여자의 아버지 손님의 의붓아버지)이 어린 핏덩이를 싸안고 마을을 떠날 때 어린 당신도 길을 함께하고 있던 일까지…….**(오라비(술손 사내)는 어린 핏덩이(여자)와 길을 함께하고 있었으나 이를 말하지 않음. → 자신(술손 사내)이 여자의 이복 남매임을 숨김.) 오라비는 제 기억이 안 닿을만한 일만 말하시고 기억이 살아 있는 뒷날 일은 입을 덮고 마시더이다.]([]: 사내 역시 여인이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 하지만 전 알고 있었더랍니다.”

▶천씨 사내에게 간밤에 오라비를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여자

그러고 나서 여자는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옛날 일 몇 대목을 사내 앞에 조용히 털어놓았다(과거 회상이 드러남. → 역순행적 구성, 윗글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소리꾼 아버지는 나 어린 오누이를 앞세우고 **이 마을 저 마을 소리로 끼니를 빌고 떠돌아다녔더라고 했다(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기억을 떠올림).**

그러면서 아버지는 철도 들기 전의 **두 어린것들(술손 사내와 여자)에게 소리를 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던지, 틈만 나면 성화가 대단했었다. 산길을 가다 고갯마루 같은 곳에 다리를 쉬고 앉아 있을 때나 어느 마을 사랑재의 헛간 같은 골방 속에 들어앉아 지낼 때나 아버지는 한사코 어린것들에게 소리를 배워 주려 애를 쓰고 있었다(소리를 알려 주기 위해 노력함.)** 했다. 하지만 **오라비는 웬 고집으로 끝끝내 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고(손님은 의붓아버지가 소리를 가르쳐 주려 한 것을 자신의 의지로 거부함. 어머니가 의붓아버지 때문에 돌아갔다고 생각한 오라비의 원한의 표현),** 어린 그녀만이 무슨 재간이 좀 뻘쬘던지 **세월 따라 조금씩 소리를 익혀 가고 있었다(오라비와 달리 소리를 배우며 익혀 가는 여자)**고 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마침내 그녀에게만 소리를 하게 했고, **소리를 싫어하는 오라비에게는 복장단을 익히게 하여 제 누이의 소리를 짚어 나가게 했다는 것이다(손님이 여자의 소리에 복장단을 맞춰 줄 수 있었던 이유). 아버 소리꾼이 데리고 다니는 오누이의 소리 솜씨는 한동안 시골 마을 사람들의 애깃거리가 되곤 할 정도가 되었다(누이의 소리 솜씨와 오라비의 복장단 솜씨가 뛰어남. 윗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에 어린 시절 아버 소리꾼을 따라다니던 누이의 소리 솜씨와 오라비의 복장단 솜씨는 뛰어났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라비는 끝내 그 복채잡이조차도 따르기가 싫었던 모양이다(의붓아버지에 대한 원한으로 인한 반항심).**]([]: 오라비가 떠난 이유를 추측함.) 어느 해 **가을날(여자와 오라비가 이별한 계절적 배경)**인가, 인적 드문 산길을 지나가던 아버가 통곡이라도 하듯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수궁가> 한 대목을 처연스럽게 뽑아 넘기고 나서 기운이 파해 드러누워 있을 때, **오라비는 용변이나 보러 가듯 숲속으로 들어가고 나선 영영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말았다(손님이 스스로 가족을 떠났음을 알**

수 있음. **의붓아비에 대한 원망으로 누이를 버리고 떠남.**)는 것이다. >< : 서술상의 특징 - 서술자가 특정 인물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함.)

“오라비가 가고 난 후 노인네는 아마 딸년마저 도망질을 칠까 봐 겁이 나지 않았겠소. 그래 아버지는 딸의 눈을 멀게 한 거랍니다.(여자가 눈이 멀게 된 이유, 도망친 오라비를 보고 딸은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눈을 멀게 함.)”

▶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이야기하는 여자

여자는 비로소 **한숨 섞인 음성**(자신의 기구한 삶에 대한 한탄)으로 눈이 멀게 된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죽이고 나니까 그 죽은 눈빛이 다시 목청으로 살아났던지 그녀의 소리는 윤택해지고**(소리를 매개로, 한이 예술적으로 승화함을 짐작할 수 있음. **눈이 멀게 되어 쌓인 한이 소리에 담기면서 좋은 소리를 내게 됨.**), 그 덕분에 부녀는 오라비가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힘들이지 않고 이 고을 저 고을로 구걸 유랑을 계속해 다닐 수 있었다고 했다(**떠돌이 인생을 산 여자**). 그리고 그럭저럭 **환갑길에 들어선 노인**(소리꾼 아버지)이 어느 겨울날 저녁 보성 고을 근처 한 헛간 같은 빈집에서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아버지는 자신이 죽기 전 비밀을 밝힘.) 아버지는 비로소 그녀가 모르고 있던 몇 가지 비밀—**그녀와 그녀의 달아난 오라비 사이의 어정쩡한 인륜 관계**(여인이 오라비의 이복동생임을 밝힘.) 하며 [잠든 딸에게 **청강수**(‘엄산’을 달리 이르는 말)를 찍어 넣어 그녀의 눈을 멀게 한 **비정스런 아버지의 업과**(윗글의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눈먼 여자를 홀로 두고 죽는 아버지의 업과를 의미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윗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에 아버지는 딸마저 도망칠까 봐 의도적으로 딸의 눈을 멀게 하였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들을 눈물로 사죄하고 갔다는 것이다.

▶ 한으로 윤택해진 여자의 소리와 아버지의 죽음

2024
EBS
수능특강

2024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9 | 소리의 빛 내용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감상 포인트와 주제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와 더불어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 중 한 편으로 ‘한(恨)’이 소리를 통해 깊어지고 예술적으로 승화 하는 과정을 한 소리꾼 여인 의 기구한 삶 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추리 소설적 기법과 액자 구성 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흥미 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리꾼 여인 과 그 아버지 ,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오라비 사이의 관계와 사연을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다.
주제	한 의 예술적 승화

2. 전체 줄거리

늦가을 어느 저녁 무렵 탐진강가 주변의 **천씨 사내**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와 주막집의 눈먼 **여인**에게 소리를 청한다. 사내는 단가를 부르는 눈먼 여인에게 진짜 소리인 **판소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청한다. 사내는 소리를 좋아하게 된 내력을 묻는 여인의 **질문**에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는다. 어린 시절 **떠돌이** 소리꾼이 찾아와 사내의 **홀어머니**와 살게 되고, 어머니가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사내는 소리꾼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된다. 이후 사내는 소리꾼과 여기저기 떠돌다 **도망치지만**, 세월이 흘러도 소리를 버리고 살 수가 없어 **소리**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한다. 여인은 사내의 **복장단**에 맞춰 밤새 소리를 하고, 사내가 자신의 **오라비**임을 알게 되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는다. 이튿날 사내는 주막을 떠나고,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천씨 사내에게 털어놓으며 십 년 넘게 머물던 **주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3. 주요 인물에 대한 이해

여자	-아비에 의해 눈 이 멀게 됨. - 천씨 사내 의 집에서 소리를 하며 지냄. -자신을 찾아온 오라비 의 장단에 맞춰 소리를 함.
손님	- 의붓아버지 에게 소리를 배우려 하지 않음. -용변을 보러 가는 척하며 가족 을 떠남. -동생을 찾아와 동생의 소리에 장단 을 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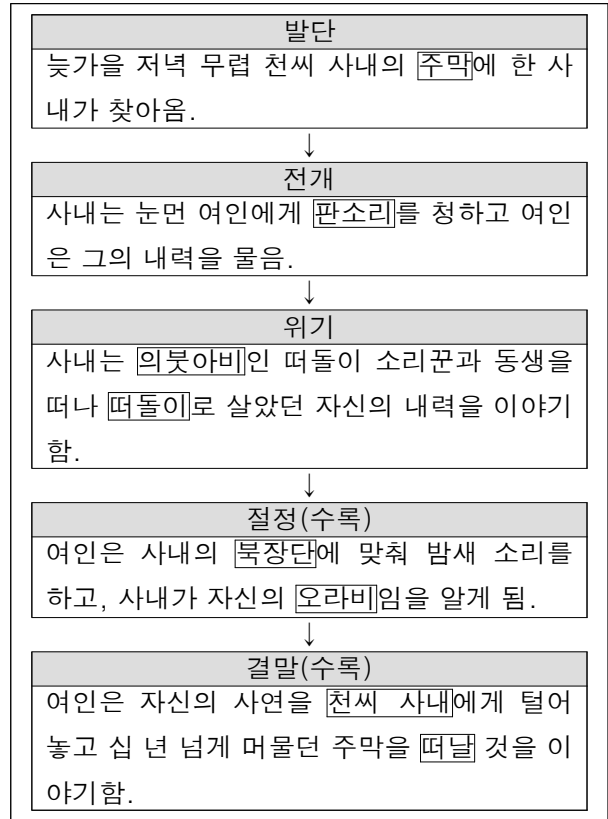
4. 소설과 각색한 시나리오의 비교

	소설: 소리의 빛	시나리오: 서편제
공통점	-소리를 통해 남매가 서로를 확인하고 교감함. -'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여자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함. -'천씨' 성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소리로 교감하는 것을 들음.	
차이점	-'손님'이 '여자'의 오빠임. -'여자'가 '천씨 사내'에게 자신의 오라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	-'송화'가 '동호'의 누나임. -'송화'가 '천개'에게 '동호'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음.

5. 판소리를 통한 한의 예술적 승화

한의 정서는 비극적 사건을 통해 이끌어 나온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인물이 복수를 생각하면 원한이 되고, 용서를 생각하면 한으로 승화한다. 이때 판소리는 인물의 감정을 한으로 승화하게 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판소리의 사실은 대체로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고, 이를 부르고 듣는 행위를 통해 그 아픔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판소리를 매개로 한 연희의 참가자, 즉 창자와 고수, 관객들의 호응은 그들의 응어리진 정서를 풀어내고 한의 예술적 승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6. 작품 전체의 구조



7.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과 영화 「서편제」

1976년 발표된 「서편제」를 시작으로 「소리의 빛」(1977), 「선학동 나그네」(1979), 「새와 나무」(1980), 「다시 태어나는 말」(1981) 등 총 5편을 묶어 일컫는 말이다. 이 작품들은 우리의 전통적 정서로서 한(恨)의 심상과 언어, 그 한을 품고 산 사람들의 삶이 예술적으로 승화된 판소리의 세계를 통해 존재의 언어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탐색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서편제」와 「소리의 빛」은 1993년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로 영화화되었고,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라 할 만한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을 거두었으며, 대중상 영화제의 최우수 작품상과 백상예술대상의 영화 작품상 등 다수의 수상을 거둔다.

8. EBS Q&A

Q. 소설에서 서술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서술은 **꺠** 양식과 **서사** 양식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가 될 만큼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사건일지라도 어떤 서술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주제**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작가의 **의도**나 인물의 성격, **장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술 방식이나 서술자의 역할, 특성 등에 주목하면 작품의 의미에 더욱 다채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 지문에서 서술과 관련된 문항이 빈번하게 출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설을 감상할 때, **서술자**가 누구인지, 서술자를 그렇게 설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하고, 소설에 나타나는 다양한 서술 방식들을 익히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장면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TEST 1단계

1. 감상 포인트와 주제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와 더불어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 중 한 편으로 ‘□(恨)’이 소리를 통해 깊어지고 예술적으로 □화하는 과정을 한 소리꾼 □인의 기구한 □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추리 소설적 기법과 □자 □성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미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리꾼 □인과 그 □비,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라비 사이의 관계와 사연을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다.
주제	□의 □술적 승화

2. 전체 줄거리

늦가을 어느 저녁 무렵 탐진강가 주변의 □씨 □내의 주막에 한 □내가 찾아와 주막집의 눈먼 □인에게 소리를 청한다. 사내는 단가를 부르는 눈먼 여인에게 진짜 소리인 □소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청한다. 사내는 소리를 좋아하게 된 내력을 묻는 여인의 □문에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는다. 어린 시절 □돌이 소리꾼이 찾아와 사내의 □어머니와 살게 되고, 어머니가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사내는 소리꾼에 대한 □오를 품게 된다. 이후 사내는 소리꾼과 여기저기 떠돌다 □망치지만, 세월이 흘러도 소리를 버리고 살 수가 없어 □리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한다. 여인은 사내의 □장단에 맞춰 밤새 소리를 하고, 사내가 자신의 □라비임을 알게 되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는다. 이튿날 사내는 주막을 떠나고, □인은 자신의 사연을 천씨 사내에게 털어놓으며 십 년 넘게 머물던 □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3. 주요 인물에 대한 이해

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비에 의해 □이 멀게 됨. -□씨 □내의 집에서 소리를 하며 지냄. -자신을 찾아온 □라비의 장단에 맞춰 소리를 함.
손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붓아비에게 소리를 배우려 하지 않음. -용변을 보러 가는 척하며 □족을 떠남. -동생을 찾아와 동생의 소리에 □단을 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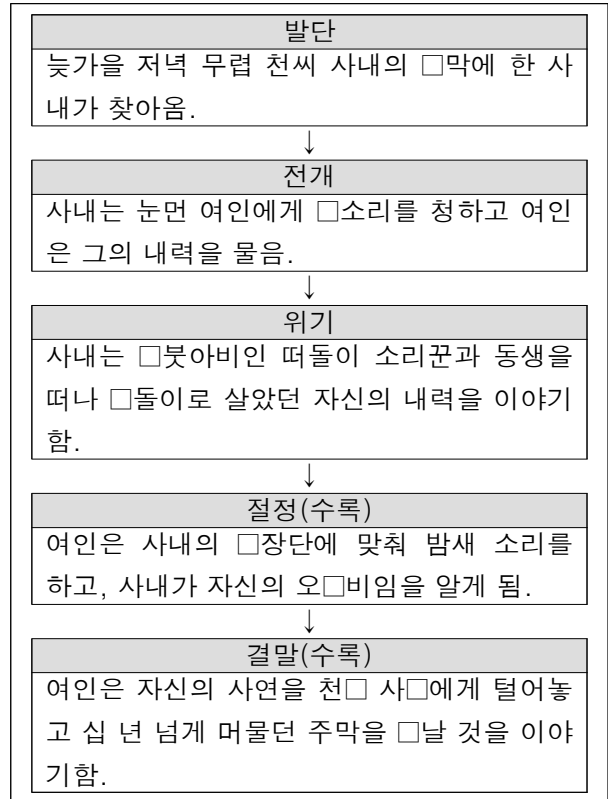
4. 소설과 각색한 시나리오의 비교

	□설: 소리의 빛		□나리오: 서편제	
공 통 점	-□리를 통해 남매가 서로를 확인하고 교감함.			
	-‘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여자의 이야기를 □끌어 □는 역할을 함.			
차 이 점	-‘□님’이 ‘여자’의 오빠임.		-‘□화’가 ‘동호’의 누나임.	
	-‘□자’가 ‘천씨 사내’에게 자신의 오라비 이야기를 한 적이 □음.		-‘송화’가 ‘□가’에게 ‘동호’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음.	

5. 판소리를 통한 한의 예술적 승화

한(恨)의 정서는 □극적 사건을 통해 이끌려 나온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인물이 복수를 생각하면 □한이 되고, 용서를 생각하면 한으로 □화한다. 이때 □소리는 인물의 감정을 한으로 승화하게 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판소리의 사설은 대체로 □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고, 이를 부르고 듣는 행위를 통해 그 아픔은 □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판소리를 매개로 한 연희의 참가자, 즉 창자와 고수, 관객들의 호응은 그들의 응어리진 □서를 풀어내고 한의 □술적 □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6. 작품 전체의 구조



7.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과 영화 「서편제」

1976년 발표된 「서편제」를 시작으로 「소리의 빛」(1977), 「선학동 나그네」(1979), 「새와 나무」(1980), 「다시 태어나는 말」(1981) 등 총 5편을 묶어 일컫는 말이다. 이 작품들은 우리의 □통적 정서로서 한(恨)의 심상과 언어, 그 한을 품고 산 사람들의 삶이 □술적으로 승화된 □소리의 세계를 통해 존재의 언어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탐색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서편제」와 「소리의 빛」은 1993년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로 □화되었고,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라 할 만한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을 거두었으며, 대중상 영화제의 최우수 작품상과 백상예술대상의 영화 작품상 등 다수의 수상을 거둔다.

8. EBS Q&A

Q. 소설에서 서술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서술은 □양식과 □사 양식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가 될 만큼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사건일지라도 어떤 서술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제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작가의 □도나 인물의 성격, □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술 방식이나 서술자의 역할, 특성 등에 주목하면 작품의 의미에 더욱 다채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 지문에서 서술과 관련된 문항이 빈번하게 출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설을 감상할 때, □술자가 누구인지, 서술자를 그렇게 설정한 □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하고, 소설에 나타나는 다양한 서술 방식들을 익히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장면에서 어떤 □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TEST 2단계

1. 감상 포인트와 주제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와 더불어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 중 한 편으로 ‘□(恨)’이 소리를 통해 깊어지고 예술적으로 □□하는 과정을 한 소리꾼 □□의 기구한 □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추리 소설적 기법과 □□ □성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리꾼 □□과 그 □□,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비 사이의 관계와 사연을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다.
주제	□의 □□적 승화

2. 전체 줄거리

늦가을 어느 저녁 무렵 탐진강가 주변의 □□ □내의 주막에 한 □□가 찾아와 주막집의 눈먼 □□에게 소리를 청한다. 사내는 단가를 부르는 눈먼 여인에게 진짜 소리인 □□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청한다. 사내는 소리를 좋아하게 된 내력을 묻는 여인의 □□에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는다. 어린 시절 □□이 소리꾼이 찾아와 사내의 □어 □니와 살게 되고, 어머니가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사내는 소리꾼에 대한 □□를 품게 된다. 이후 사내는 소리꾼과 여기저기 떠돌다 □□치지만, 세월이 흘러도 소리를 버리고 살 수가 없어 □□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한다. 여인은 사내의 □장□에 맞춰 밤새 소리를 하고, 사내가 자신의 □라□임을 알게 되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는다. 이튿날 사내는 주막을 떠나고, □□은 자신의 사연을 천서 사내에게 털어놓으며 십 년 넘게 머물던 □□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3. 주요 인물에 대한 이해

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비에 의해 □이 멀게 됨. -□□ □내의 집에서 소리를 하며 지냄. -자신을 찾아온 □라□의 장단에 맞춰 소리를 함.
손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붓□비에게 소리를 배우려 하지 않음. -용변을 보러 가는 척하며 □□을 떠남. -동생을 찾아와 동생의 소리에 □□을 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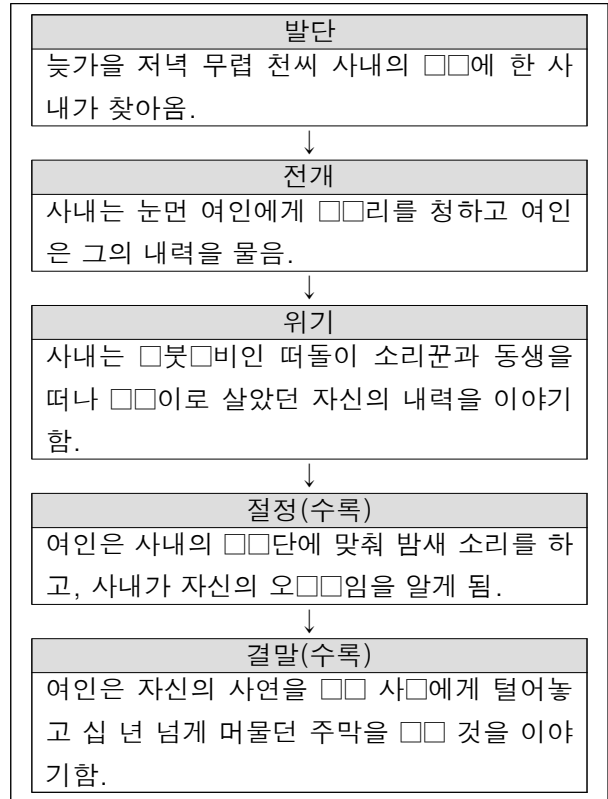
4. 소설과 각색한 시나리오의 비교

	□□: 소리의 빛	□나□오: 서편제
공 통 점	-□□를 통해 남매가 서로를 확인하고 교감함.	
	-‘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여자의 이야기를 □□어 □□ 역할을 함.	
차 이 점	-‘□□’이 ‘여자’의 오빠임.	-‘□□’가 ‘동호’의 누나임.
	-‘□□’가 ‘천씨 사내’에게 자신의 오라비 이야기를 한 적이 □□.	-‘송화’가 ‘□□’에게 ‘동호’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

5. 판소리를 통한 한의 예술적 승화

한의 정서는 □□적 사건을 통해 이끌려 나온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인물이 복수를 생각하면 □□이 되고, 용서를 생각하면 한으로 □□한다. 이때 □□리는 인물의 감정을 한으로 승화하게 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판소리의 사설은 대체로 □□들의 애환을 담고 있고, 이를 부르고 듣는 행위를 통해 그 아픔은 □□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판소리를 매개로 한 연희의 참가자, 즉 창자와 고수, 관객들의 호응은 그들의 응어리진 □□를 풀어내고 한의 □□적 □□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6. 작품 전체의 구조



7.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과 영화 「서편제」

1976년 발표된 「서편제」를 시작으로 「소리의 빛」(1977), 「선학동 나그네」(1979), 「새와 나무」(1980), 「다시 태어나는 말」(1981) 등 총 5편을 묶어 일컫는 말이다. 이 작품들은 우리의 □□적 정서로서 한(恨)의 심상과 언어, 그 한을 품고 산 사람들의 삶이 □□적으로 승화된 □□리의 세계를 통해 존재의 언어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탐색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서편제」와 「소리의 빛」은 1993년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로 □□화되었고,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라 할 만한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을 거두었으며, 대중상 영화제의 최우수 작품상과 백상예술대상의 영화 작품상 등 다수의 수상을 거둔다.

8. EBS Q&A

Q. 소설에서 서술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서술은 □ 양식과 □□ 양식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가 될 만큼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사건일지라도 어떤 서술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작가의 □□나 인물의 성격, □□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술 방식이나 서술자의 역할, 특성 등에 주목하면 작품의 의미에 더욱 다채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 지문에서 서술과 관련된 문항이 빈번하게 출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설을 감상할 때, □□자가 누구인지, 서술자를 그렇게 설정한 □□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하고, 소설에 나타나는 다양한 서술 방식들을 익히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장면에서 어떤 □□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TEST 3단계

1. 감상 포인트와 주제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와 더불어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 중 한 편으로 ‘_(恨)’이 소리를 통해 깊어지고 예술적으로 ___하는 과정을 한 소리꾼 ___의 기구한 ___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추리 소설적 기법과 ___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___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리꾼 ___과 그 ___,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___ 사이의 관계와 사연을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다.
주제	___의 ___ 승화

2. 전체 줄거리

늦가을 어느 저녁 무렵 탐진강가 주변의 ___의 주막에 한 ___가 찾아와 주막집의 눈먼 ___에게 소리를 청한다. 사내는 단가를 부르는 눈먼 여인에게 진짜 소리인 ___를 제대로 해달라고 청한다. 사내는 소리를 좋아하게 된 내력을 묻는 여인의 ___에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는다. 어린 시절 ___소리꾼이 찾아와 사내의 ___와 살게 되고, 어머니가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사내는 소리꾼에 대한 ___를 품게 된다. 이후 사내는 소리꾼과 여기저기 떠돌다 ___치지만, 세월이 흘러도 소리를 버리고 살 수가 없어 ___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한다. 여인은 사내의 ___에 맞춰 밤새 소리를 하고, 사내가 자신의 ___임을 알게 되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는다. 이튿날 사내는 주막을 떠나고, ___은 자신의 사연을 천씨 사내에게 털어놓으며 십 년 넘게 머물던 ___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3. 주요 인물에 대한 이해

여자	-아비에 의해 ___이 멀게 됨. -___의 집에서 소리를 하며 지냄. -자신을 찾아온 ___의 장단에 맞춰 소리를 함.
손님	-___에게 소리를 배우려 하지 않음. -용변을 보러 가는 척하며 ___을 떠남. -동생을 찾아와 동생의 소리에 ___을 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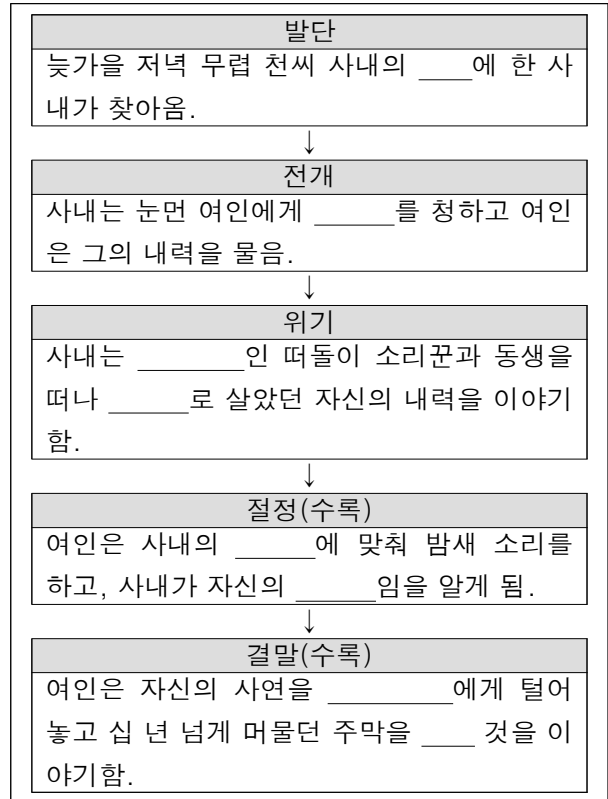
4. 소설과 각색한 시나리오의 비교

	: 소리의 빛	: 서편제
공 통 점	- _____를 통해 남매가 서로를 확인하고 교감함.	
	- '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여자의 이야기를 _____ 역할을 함.	
차 이 점	- '_____'이 '여자'의 오빠임.	- '_____'가 '동호'의 누나임.
	- '_____'가 '천씨 사내'에게 자신의 오라비 이야기를 한 적이 _____.	- '송화'가 '_____'에게 '동호'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_____.

5. 판소리를 통한 한의 예술적 승화

한(恨)의 정서는 _____ 사건을 통해 이끌려 나온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인물이 복수를 생각하면 _____이 되고, 용서를 생각하면 한으로 _____한다. 이때 _____는 인물의 감정을 한으로 승화하게 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판소리의 사설은 대체로 _____들의 애환을 담고 있고, 이를 부르고 들는 행위를 통해 그 아픔은 _____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판소리를 매개로 한 연희의 참가자, 즉 창자와 고수, 관객들의 호응은 그들의 응어리진 _____를 풀어내고 한의 _____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6. 작품 전체의 구조



7.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과 영화 「서편제」

1976년 발표된 「서편제」를 시작으로 「소리의 빛」(1977), 「선학동 나그네」(1979), 「새와 나무」(1980), 「다시 태어나는 말」(1981) 등 총 5편을 묶어 일컫는 말이다. 이 작품들은 우리의 _____ 정서로서 한(恨)의 심상과 언어, 그 한을 품고 산 사람들의 삶이 _____으로 승화된 _____의 세계를 통해 존재의 언어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탐색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서편제」와 「소리의 빛」은 1993년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로 _____되었고,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라 할 만한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을 거두었으며, 대중상 영화제의 최우수 작품상과 백상예술대상의 영화 작품상 등 다수의 수상을 거둔다.

8. EBS Q&A

Q. 소설에서 서술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서술은 __ 양식과 __ 양식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가 될 만큼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사건일지라도 어떤 서술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__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작가의 __나 인물의 성격, __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술 방식이나 서술자의 역할, 특성 등에 주목하면 작품의 의미에 더욱 다채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 지문에서 서술과 관련된 문항이 빈번하게 출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설을 감상할 때, __가 누구인지, 서술자를 그렇게 설정한 __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하고, 소설에 나타나는 다양한 서술 방식들을 익히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장면에서 어떤 __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2024
EBS
수능특강

2024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9 | 소리의 빛 서술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가 이윽고 뭔가 사내를 달래듯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그녀 앞에 안고 있던 북통과 장단 막대를 말없이 사내 앞으로 밀어 놓았다.

소리를 청해 들을 양이면 이제부터 장단을 좀 잡아 달라는 시늉이었다. 소리를 청해 들을 만한 사람에겐 흔히 해 온 일이었다. 여자는 으레 손님의 숨씨를 믿는 얼굴이었다.

여자의 갑작스런 주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사내 쪽이 뜻밖인 모양이었다. 여자가 밀어 보낸 북통을 앞에 한 사내의 눈길엔 졸지에 일을 당하고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여자의 눈길은 거의 일방적으로 손님을 강요해 오고 있는 식이었다.

“하두 오래 손을 잡아 본 일이 없어서……. 내 장단이 자네 소리에 잘 맞아 들지 모르겠네…….”

사내도 마침내는 여인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천천히 자기 앞으로 북통을 끌어당겨 갔다.

그로부터 여자와 술손은 다시 소리로 꼬박 밤을 지새듯 하였다.

여자는 이제 숨이 짧은 단가에서 본격적인 판소리 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아 나갔다.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 한 자리에서부터 <춘향가>의 옥중비가 한 대목을 넘어가고, <흥부가> 중의 흥보 매품팔이며 신세 한탄 늘어놓는 진양조 한 가락을 엮어 내고, <수궁가>로 <적벽가>로 명인 명창들의 이름난 더늠들을 두루 불러 돌아간 후에, 나중에는 <심청가>의 심 봉사 황성길 찾아가는 처량한 정경까지 끈질기게 소리를 이어 나갔다.

[A]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다. 여자의 목청은 남정네들의 그 켄켄하고 장중한 우조(羽調) 뿐 아니라 여인네 특유의 맑고 고운 계면조(界面調)풍도 함께 겸비하고 있어서, ㉠ 때로

는 바위처럼 우람하고 도저한 기백이 솟아오르는가 하면 때로는 낙화처럼 한스럽고 가을 서릿발처럼 섬뜩섬뜩한 귀기가 넘쳐 났다. 가파른 절벽을 넘고 나면 유장한 강물이 산야를 걸쳐 있고, 사나운 폭풍의 한밤이 지나고 나면 새소리 무르익는 꽃 벌판의 한나절이 펼쳐졌다.

놀라운 것은 그 지칠 줄 모르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술손의 장단 가락 숨씨 또한 예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 춘향이 옥중가 한 대목이 어떠시오.

— 흥부가 매품팔이 나가는 신세타령 한 대목이 어떠시오?

여인은 소리를 한 대목씩 시작할 때마다 번번이 손님에게 의향을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손님도 ‘그거 좋겠네, 그거 좋겠네.’, 즐겁게 화답을 보내며 여자가 첫소리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장단 가락을 잡아 나가곤 했다. 느리거나 빠르거나 여자의 소리만 시작되면 사내는 마치 장단을 미리 외우고 있었던 것처럼 숨씨가 익숙했다.

그러나 ㉡ 손님이고 여자고 새삼스레 상대방의 숨씨를 놀라워하는 빛은 전혀 서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여인과 손님은 끊임없이 소리를 하고 장단을 몰아 나갈 뿐이었다.

어이 가리 어이 가리 황성만리를 어이 가리
오늘은 가다 어데 가 자며 내일은 가다 어데 잘고……

더듬더듬 더듬으며 정향 없이 올라갈 제
때는 삼복 증염이라 별빛은 불꽃 같고 땀은 흘러비 같은데……

여자는 소리를 굴렀다가 깎았다 멧었다가 풀었다 하면서 온갖 변화무쌍한 조화를 이끌어 냈고, 손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장단을 던지 않고 교묘하게 그 사이를 빠져 넘나드는가 하면, 때로는 장단을 건너가는 엇붙임을 빚어내어 그 숨씨를 마음껏 즐기게 하였다.

그것은 마치 소리와 장단이, 서로 몸을 대지 않고 능히 상대편을 즐기는 음양 간의 기막힌 희롱과도 같은 것이었고, 희롱이라기보다는 그 몸을 대지 않는 소리와 장단의 기묘하게 틈이 없는 포옹과도 같은 것이었다.

(중략)

“그렇습니다. 간밤엔 제 오라비를 만났더랍니다.”

주인 사내는 비로소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 고개를 한 차례 크게 끄덕이고 나서 다시 질문의 꼬리를 이었다.

“하기야 나도 간밤부터 뭔가 심상찮은 느낌이 없지 않았대네. 하지만 자넨 여태까지 한 번도 오라비 이야길 한 일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그 산 소리가 저녁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서 콩밭 여자에게 아이를 배게 하여 낳은 핏덩이가 바로 자네였더라 말인가?”

천췌 사내는 간밤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은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서슴없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다시 분명하게 대답했다. 사내 앞에선 이제 아무것도 이야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오라비는 어젯밤 일부러 ㉠ 그 핏덩이가 계집아이였다는 말씀은 참아 버리셨소. 그 ㉡ 소리꾼 노인이 어린 핏덩이를 싸안고 마을을 떠날 때 어린 당신도 길을 함께하고 있던 일까지……. 오라비는 제 기억이 안 달을만한 일만 말하시고 기억이 살아 있는 뒷날 일은 입을 덮고 마시더이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는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옛날 일 몇 대목을 사내 앞에 조용히 털어놓았다.

소리꾼 아버지는 나 어린 오누이를 앞세우고 이 마을 저 마을 소리로 끼니를 벌고 떠돌아 다녔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철도 들기 전의 두 어린것들에게 소리를 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던지, 틈만 나면 성화가 대단했었다. 산길을 가다 고갯마루 같은 곳에 다리를 쉬고 앉아 있을 때나 어느 마을 사랑재의 헛간 같은 골방 속에 들어앉아 지낼 때나 아버지는 한사코 어린것들에게 소리를 배워 주려 애를 쓰고 있었다 했다. 하지만 오라비는 웬 고집으로 끝끝내 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고, 어린 그녀만이 무

[B]

슨 재간이 좀 뽐냈던지 세월 따라 조금씩 소리를 익혀 가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마침내 그녀에게만 소리를 하게 했고, 소리를 싫어하는 오라비에게는 북장단을 익히게 하여 제 누이의 소리를 짚어 나가게 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소리꾼이 데리고 다니는 오누이의 소리 솜씨는 한동안 시골 마을 사람들의 애깃거리가 되곤 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오라비는 끝내 그 북채잡이조차도 따르기가 싫었던 모양이다. 어느 해 가을 날인가, 인적 드문 산길을 지나가던 아버지가 통곡이라도 하듯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수궁가> 한 대목을 처연스럽게 뽑아 넘기고 나서 기운이 파해 드러누워 있을 때, 오라비는 용변이나 보러 가듯 숲속으로 들어가고 나선 영영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말았다는 것이다.

“오라비가 가고 난 후 노인네는 아마 딸년마저 도망질을 칠까 봐 겁이 나지 않았겠소. 그래 아버지는 딸의 눈을 멀게 한 거랍니다.”

여자는 비로소 한숨 섞인 음성으로 눈이 멀게 된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죽이고 나니까 그 죽은 눈빛이 다시 목청으로 살아났던지 그녀의 소리는 윤택해지고, 그 덕분에 부녀는 오라비가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힘들이지 않고 이 고을 저 고을로 구걸 유랑을 계속해 다닐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럭저럭 환갑길에 들어선 노인이 어느 겨울날 저녁 보성 고을 근처 한 헛간 같은 빈집에서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비로소 그녀가 모르고 있던 몇 가지 비밀—그녀와 그녀의 달아난 오라비 사이의 어정쩡한 인륜 관계 하며 잠든 딸에게 청강수를 찍어 넣어 그녀의 눈을 멀게 한 비정스런 아버지의 업과 들을 눈물로 사죄하고 갔다는 것이다.

사용 설명서 반영 문제

1. ㉠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손님과 여자가 ~을/를 추측할 수 있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사용 설명서 반영 문제

2. '천씨 사내'의 역할을 '여자'와 관련지어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 '여자의 ~'의 형식으로 시작할 것.
- 명사형 종결어미로 끝맺을 것.

사용 설명서 반영 문제

5. [A]와 [B]에 드러난 서술상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조건> —————

- '서술자', '특정 인물'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 '[A]는 ~(으)로 전달하고, [B]는 ~(으)로 전달한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사용 설명서 반영 문제

3. '판소리'의 역할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 '승화', '매개'를 활용하여 서술할 것.
- '판소리는 ~(으)로 작용한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사용 설명서 반영 문제

6. '여자'가 눈이 멀게 된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 그대로 서술하시오.

————— <조건> —————

- 큰따옴표를 포함한 인물의 말 전체를 서술할 것.

사용 설명서 반영 문제

4. <보기>의 밑줄 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서술하시오.

————— <보기> —————

이 작품은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와 더불어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 중 한 편으로 '한(恨)'이 소리를 통해 깊어지고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과정을 _____하고 있다. 작가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추리 소설적 기법과 액자 구성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사용 설명서 반영 문제

7. 윗글에서 ㉠와 ㉡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 '㉠는 ~을/를 의미하고, ㉡은 ~을/를 의미한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 ㉡가 여자의 입장에서는 누구인지, 손님의 입장에서는 누구인지 둘 다 서술할 것.
- ㉠와 ㉡를 밝혀 적을 것.

8. 윗글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소설 구성상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보기>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덕푸드덕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러었다.

<중략>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김유정, <동백꽃>

<조건>

- ‘윗글과 <보기>는 ~이/가 드러난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훑아가며 슬피 읊니다.

<조건>

- ‘전통적’, ‘정서’를 활용하여 서술할 것.
- ‘우리의 ~이/가 드러난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9. 윗글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한국문학의 고유한 문학적 특질을 서술하시오.

<보기>

접동 / 접동 /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 마을에 / 와서 읊니다.

옛날, 우리나라 /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랴

오오 불설워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10. ㉠와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과 개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불에 떠오르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조건>

- ‘~이/가 사용되었으며, ~은/는 ~ 표현하는 방법이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 ‘두 대상’, ‘비교’를 활용할 것.

2024
EBS
수능특강

2024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9 | 소리의 빛 연계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연계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이청준의 「소리의 빛」이 단독 지문으로 출제되어 서술상의 특징 파악, 작품의 내용 이해,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등을 묻고 있습니다.

「소리의 빛」을 포함한 『남도 사람』 연작은 판 소리를 매개로 한의 예술적 승화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어와 삶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작가적 성찰의 과정을 보여 주는 작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쓰기를 통해 존재를 성찰하고 있는 같은 작가의 「자서전들 쓰십시다」와 엮어 읽을 수 있습니다.

「자서전들 쓰십시다」는 남의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인물을 통해 참된 글쓰기의 의미를 탐색하는 작품으로, 참된 자서전 쓰기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는데, ‘글쓰기’ 행위가 각각의 등장인물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옥은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옥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이 그를 못 견디게 짓눌러 왔다. 믿음의 논리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은 맹목적인 아집에 그칠 위험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은 털끝만큼 한 자기 회의마저 용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회의가 없는 신념은 맹목적인 **자기 독단**에 그를 위험 또한 큰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옥이 그에게 소망해 온 어떤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일 수 있었다. **회의**가 없는 자서전이야말로 영락 없이 한 거인의 동상에 불과 할 뿐이었다. 지옥이 최

상윤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 자신 최상윤 선생에게서와 같은 어떤 **의식의 경화** 현상을 싫어해 온 성격 이외에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어슴푸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그보다도 지옥이 더더욱 그 선생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의 너무나도 일사불란한 언동이나 생활 방식에서 오히려 어떤 씻을 수 없는 가식의 냄새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인간의 생애에서 이처럼이나 말끔하게 후회나 의구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간간하고 **결백**스런 노인에게서라도 어찌 따뜻한 아랫목과 좋은 음식에 대한 바람이 전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엄격한 극기**의 세월이었던들 그것이 어찌 감히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욕망까지를 송두리째 근멸시켜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노인은 어찌하여 그것을 끝끝내 시인하려 들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진실로 그의 **부끄러움**이 될 수는 없단 말인가-

(중략)

“이거 아무리 맘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라고 누구한테 지금 설교를 하려는 거야 뭐야, 건방지게. 그래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위인의 신세 하소연이나 듣자고 이런 델 찾아온 줄 알아? 그렇게 내가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말야. 왜 내 일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걸 말해 보라는 거야. 이유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반말 투로 옥박질러** 오는 피문오 씨의 어조에 지옥은 새삼 가슴이 내려앉는 표정이었으나, 이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피문오 씨의 행패는 겁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게 아니라니? 아니 이거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날 바보 취급하고 나설 테야? 당신 눈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얼렁뚱땅 되잖은 소리로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보인 모양이지? 그래, 뭐가 어째? 내 일 하지 않게 된 게 내 탓이 아니구 당신의 그 알량한 양심 때문이라구? 내가 그래 그 알량한 당신의 양심에 들러리라도 서야 한다는 거야 뭐야. 업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놈 아들놈 같은 소릴 가지고, 정 내게 ㉠

말재간 을 한번 부러 보고 싶어서 이래? 당신 눈엔 이 피문오가 그래 그만 ㉠ **말귀도 못 알아들을 바보 멍청이로만 보이느냐 말야?** 내 아까부터 참자 참자 하다 보니 이 친구 아주 형편없이 맹랑한 데가 있는 작자로구만그래.”

피문오 씨는 이제 스스로도 분을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벌건 얼굴에 튀어나올 듯 두 눈알을 부러려 대면서 장갑을 몰아 쥐 한쪽 손을 피스톤처럼 마구 지옥의 턱 앞으로 내질러 대고 있었다.

지옥은 그만 기가 짝 질리고 말았다. ㉡ **무슨 말을 할래도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려 오는 두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선 채 절망적인 눈초리로 피문오 씨의 폭풍우 같은 수모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었다.

불현듯 최상운 선생의 일이 이 처참스런 곤욕을 견뎌 낼 수 있는 어떤 서광처럼 머릿속으로 떠올라 왔다. 최상운 선생과의 약속이 그의 참을성에는 상당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이런 자의 자서전 따위 대필하려 했다니! 최상운 선생과 같은 분에게조차 내 주관을 굽힐 수 없었던 이 지옥이 아닌가. 이런 자의 책을 쓰면서 그의 밑구멍을 훑느니 차라리 선생의 발밑에라도 나가 엎드려 선생의 신념을 찬미함이 낫지 않느냐. 참자! 작자의 일을 피하자면 이쯤 굴욕은 즐거이 참아 넘기자. 참아서 넘겨야 한다-

하지만 피문오 씨는 그 정도로서는 물론 분통이 풀릴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어디 선생! ㉢ **말씀을 좀 해 보시라구.** 아니 글에서는 것처럼 잘난 체 말이 많더니, 제 잘난 소리나 시부렁거릴 줄 알았지 선생도 남의 말을 알아듣는 덴 귀가 짝 멀어 버리셨나. 왜 통 대답이 없으세요? 그렇담 내가 좀 더 수고를 해 주실까? 어째서 내 일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내 일을 하기가 싫어졌느냐…… 그 이을 좀 더 솔직하게 말해달라 이거야. 이 무식한 놈도 좀 분명하게 알아듣고 납득이 가게끔 말씀이야.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겠다면 ㉣ **내 좀 더 똑똑히 말을 해 줄까?**”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지옥을 마음 내키는 대로 매도해 대다 말고 피문오 씨는 무슨 생각을 해냈는지 갑자기 목을 잔뜩 가다듬었다. 그러고는 청승맞도록 능청스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쳐 대기 시작했다.

㉤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들 고칩시다아- 채권 삽니다아-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 삽니다 아- 자서**

전이나 회고록들 쓰십시다아-”

고저단속(高低斷續)을 적당히 조화시켜 가며 길게 외쳐대고 난 피문오 씨가 이젠 좀 알아듣겠느냐는 듯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지옥을 이윽히 건너다보았다.

-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교차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며 인물이 처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며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2. 문맥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피문오가 지옥의 말을 무시하고자 하는 경멸의 감정을 담고 있다.
- ② ㉡: 지옥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피문오의 성난 감정을 담고 있다.
- ③ ㉢: 피문오에게서 수모를 당하는 지옥이 항변도 못하고 주눅이 든 상태를 나타낸다.
- ④ ㉣: 피문오가 지옥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뉘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 침묵하는 지옥에게 피문오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보기>를 참고할 때,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서전들 쓰십시다」의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한다.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이다. 또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 ① 작가에게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 독단’이 강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독자를 사로잡는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② 스스로 ‘회의’하며 ‘의식의 경화’를 경계할 줄 아는 것은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은 독자에게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자서전을 쓰라고 ‘반말투로’ 작가를 ‘억박’지르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에게 아첨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⑤ 작가의 ‘양심’을 ‘알량’하다고 여기고 자신은 ‘들러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삶을 미화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4. ㉔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문오는 지옥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하여 지옥을 우롱하고 있다.
- ② 피문오가 자서전을 상품으로 팔기 위한 방법을 지옥에게 직접 보여 주고 있다.
- ③ 피문오가 ‘잘난 소리’를 하는 지옥에게 자신은 ‘무식한 놈’이 아님을 과시하고 있다.
- ④ 피문오가 자서전 쓰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야 한다고 지옥에게 요청하고 있다.
- ⑤ 피문오는 지옥의 자서전 쓰기에 소재를 제공하고자 ‘맘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어 왔던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옥은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옥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이 그를 못 견디게 짓눌러 왔다. 믿음이 논리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은 맹목적인 아집에 그칠 위험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은 털끝만큼 한 자기 회의마저 용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회의가 없는 신념은 맹목적인 **자기 독단**에 흐를 위험 또한 큰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옥이 그에게 소망해 온 어떤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일 수 있었다. **회의**가 없는 자서전이야말로 영락 없이 한 거인의 동상에 불과 할 뿐이었다. 지옥이 최상윤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 자신 최상윤 선생에게서와 같은 어떤 **의식의 경화** 현상을 싫어해 온 성격 이외에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어슴푸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그보다도 지옥이 더더욱 그 선생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의 너무나도 일사불란한 언동이나 생활 방식에서 오히려 어떤 씻을 수 없는 가식의 냄새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인간의 생애에서 이처럼이나 말끔하게 후회나 의구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깐깐하고 **결백**스런 노인에게서라도 어찌 따뜻한 아랫목과 좋은 음식에 대한 바람이 전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엄격한 극기**의 세월이었

던들 그것이 어찌 감히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욕망까지를 송두리째 근멸시켜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노인은 어찌하여 그것을 끝끝내 시인하려 들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진실로 그의 부끄러움이 될 수는 없단 말인가-

(중략)

“이거 아무리 맘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라고 누구한테 지금 설교를 하려는 거야 뭐야, 건방지게. 그래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위인의 신세 하소연이나 듣자고 이런 델 찾아온 줄 알아? 그렇게 내가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말야. 왜 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걸 말해 보라는 거야. 이유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반말 투로 욕박질러 오는 피문오 씨의 어조에 지옥은 새삼 가슴이 내려앉는 표정이었으나, 이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피문오 씨의 행패는 견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게 아니라니? 아니 이거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날 바보 취급하고 나설 테야? 당신 눈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얼렁뚱땅 되잖은 소리로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보인 모양이지? 그래, 뭐가 어째? 내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내 탓이 아니구 당신의 그 알량한 양심 때문이라구? 내가 그래 그 알량한 당신의 양심에 들러리라도 서야 한다는 거야 뭐야. 업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놈 아들놈 같은 소릴 가지고, 정 내게 ㉠ **말재간 을 한번 부려 보고 싶어서 이래?** 당신 눈엔 이 피문오가 그래 그만 ㉡ **말귀도 못 알아들을 바보 멍청이로만 보이느냐 말야?** 내 아까부터 참자 참자 하다 보니 이 친구 아주 형편없이 맹랑한 데가 있는 작자로구만그래.”

피문오 씨는 이제 스스로도 분을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벌건 얼굴에 튀어나올 듯 두 눈알을 부러려 대면서 장갑을 몰아 쥔 한쪽 손을 피스톤처럼 마구 지옥의 턱 앞으로 내질러 대고 있었다.

지옥은 그만 기가 콕 질리고 말았다. ㉢ **무슨 말을 할래도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려 오는 두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선 채 절망적인 눈초리로 피문오 씨의 폭풍우 같은 수모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었다.

불현듯 최상윤 선생의 일이 이 처참스런 곤욕을 견뎌 낼 수 있는 어떤 서광처럼 머릿속으로 떠올라 왔다. 최상윤 선생과의 약속이 그의 참을성에는 상

당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이런 자의 자서전 따윈 대필하려 했더니! 최상윤 선생과 같은 분에게조차 내 주관을 굽힐 수 없었던 이 지옥이 아닌가. 이런 자의 책을 쓰면서 그의 **밀구멍을 핥**느니 차라리 선생의 발밑이라도 나가 엎드려 선생의 신념을 찬미함이 낫지 않으나. 참자! 작자의 일을 피하자면 이쯤 굴욕은 즐거이 참아 넘기자. 참아서 넘겨야 한다-

하지만 피문오 씨는 그 정도로는 물론 분통이 풀릴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어디 선생! ㉣ **말씀을 좀 해 보시라구.** 아니 글에서는 것처럼 잘난 체 말이 많더니, 제 잘난 소리나 시부렁거릴 줄 알았지 선생도 남의 말을 알아듣는데 귀가 꼭 멀어 버리셨나. 왜 통 대답이 없으셔? 그렇담 내가 좀 더 수고를 해 주실까? 어째서 내 일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내 일을 하기가 싫어졌느냐…… 그 이을 좀 더 솔직하게 말해달라 이거야. 이 무식한 놈도 좀 분명하게 알아듣고 납득이 가게끔 말씀이야.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겠다면 ㉤ **내 좀 더 똑똑히 말을 해 줄까?**”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지옥을 마음 내키는 대로 매도해 대다 말고 피문오 씨는 무슨 생각을 해냈는지 갑자기 목을 잔뜩 가다듬었다. 그러고는 청승 맞도록 능청스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쳐 대기 시작했다.

㉥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들 고칩시다아- 채권 삽니다아-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 삽니다 아- 자서전이나 회고록들 쓰십시다아-”**

고저단속(高低斷續)을 적당히 조화시켜 가며 길게 외쳐대고 난 피문오 씨가 이젠 좀 알아듣겠느냐는 듯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지옥을 이윽히 건너다보았다.

-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

연계 기출 변형 문제

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중심인물의 내면을 묘사한다.
- ③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서 인물 간의 갈등을 서술한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이 드러난다.
- ⑤ 서술자는 작품 전체에서 교체되지 않고 동일하다.

연계 기출 변형 문제

6. ㉠~㉣중 <보기>의 (1), (2)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기호를 순서대로 고르시오.

<보기>

(1) 피문오에게서 수모를 당하는 지옥이 항변도 못하고 주눅이 든 상태를 나타낸다.
 (2) 피문오가 지옥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다투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있으며, 이는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② 스스로 '회의'하며 '의식의 경화'를 경계할 줄 아는 것은 삶을 거짓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므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③ 지옥은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없을 수 없으며 이를 가식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④ 자서전을 쓰라고 '반말투로' 작가를 '억박'지르는 것에 대해 지옥은 '밀구멍을 활'는 것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⑤ 피문오가 작가의 '양심'을 '알량'하다고 여기고 자신은 '들러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작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작가를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연계 기출 변형 문제

7. <보기>를 참고할 때,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서전들 쓰십시다」의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한다.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이다. 또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 ① 작가에게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 독단'이 강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맹목적인 자기 독단으로 흐를 수

연계 기출 변형 문제

8. <보기>는 ㉡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피문오가 ㉡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쓰는 것이 ①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를 고치는 일, 채권을 파는 일,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을 사들이는 일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피문오가 ② 자서전 대필로 돈 벌이를 하는 지옥이 ③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④ 피문오는 자서전 대필을 상행위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⑤ 지옥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하고 지옥을 우롱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서술형 문제

1. **정답** 손님과 여자가 이미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정답** 여자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함.
3. **정답** 판소리는 인물의 감정을 한으로 승화하게 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4. **정답** 한 소리꾼 여인의 기구한 삶을 통해 형상화
5. **정답** [A]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B]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6. **정답** “오라비가 가고 난 후 노인네는 아마 딸년마저 도망질을 칠까 봐 겁이 나지 않았겠소. 그래 아버지는 딸의 눈을 멀게 한 거랍니다.”
7. **정답** 그 핏덩이는 여자를 의미하고, 소리꾼 노인은 여자의 아버지이자 손님의 의붓아버리를 의미한다.
8. **정답** 윗글과 <보기>는 역순행적 구성이 드러난다.
9. **정답** 우리의 전통적 정서인 한의 정서가 드러난다.
10. **정답** 직유법이 사용되었으며, 직유법은 비슷한 점을 지닌 두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표현하는 방법이다.

연계 기출 문제

1. **정답** ②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중심인물 지옥이 최상윤, 피문오와의 일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묘사하고 있다. 지옥은 자신에게 자서전 집필을 의뢰한 최상윤의 회의를 없는 확고한 신념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자서전 대필을 거절한 일 때문에 피문오와 대립하고 있다.

- ① 장면을 빈번하게 교차하고 있지 않다.
- ③ 서술자는 이야기 내부에 있지 않으며, 서술자가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지 않다.
- ④ 지옥과 피문오와의 대화 상황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고 있지 않다.

2. **정답** ⑤

피문오는 지옥에게 화를 내면서 지옥이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납득이 가게 답해 달라고 요구한다. ㉠에서 피문오는 자신이 지옥에게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까닭, 자신이 지옥의 자서전 대필 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똑똑하게 말해 주겠다고 한다. 피문오는 지옥에게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는 것이 아니다.

- ① 피문오는 지옥에게 왜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것인지를 캐물으면서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것이 피문오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 때문이라고 한 지옥의 말이 말재간을 부린 것이라며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다.
- ② ㉡을 통해 피문오는 자신이 바보 멍청이로만 보이나며 지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피문오는 자신이 지옥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 ③ 지옥은 피문오의 행패에 기가 질려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과 같은 지경이 되었다. 지옥은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눅이 든 상태인 것이다.
- ④ ㉣에서 피문오는 지옥에게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재차 물으며 답변을 강요

하고 있다.

3. [정답] ③

지옥은 어떤 사람의 결백, 엄격한 극기가 가식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에서 없을 수 없는 후회나 의구, 사람으로서 근멸시킬 수 없는 욕망에 대해 시인하지 않는 것은 가식이자 부끄러움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격한 극기로 결백하게 사는 것이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지옥은 최상윤의 확신에 찬 신념으로부터 느끼는 압박감, 회의가 없는 신념이 맹목적인 자기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최상윤의 자서전 대필을 하지 않았다.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② 지옥은 회의가 없는 자서전은 '거인의 동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의식의 경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러므로 회의를 통해 의식의 경화를 경계하는 것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피문오는 지옥에게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강요하며 욕박지른다. 지옥은 이런 사람의 자서전을 쓰면서 '밑구멍을 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반말 투로 작가를 욕박지르는 모습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⑤ 피문오는 자신의 양심 때문에 자서전 대필을 거부한다는 지옥의 말을 '알량한 양심'이라고 깎아내리고 자신은 그 들러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강요하는 피문오의 이런 모습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4. [정답] ①

피문오가 ㉠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쓰는 것이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를 고치는 일, 채권을 파는 일,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을 사들이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피문오가 자서전 대필로 돈벌이를 하는 지옥이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피문오는 자서전 대필을 상행위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지옥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하고 지옥을 우롱하고 있다.

② 피문오가 자서전을 팔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지옥에게 이를 위한 방법을 알려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③ 피문오는 지옥을 조롱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옥에게 자신이 무식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④ 피문오는 자서전 쓰기를 권장할 것을 지옥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다.

⑤ 피문오는 지옥에게 자서전 쓰기의 소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서전 대필로 돈벌이를 하면서 양심을 이야기하는 지옥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5. [정답] ②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중심인물 지옥이 최상윤, 피문오와의 일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묘사하고 있다.

① 지옥은 자서전 대필을 거절한 일 때문에 피문오와 대립하고 있다.

③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서 지옥과 최상윤, 지옥과 피문오와의 갈등을 서술하고 있다.

④ 지옥과 피문오와의 대화로 인물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동일하다.

6. [정답] ③

㉠ 지옥은 피문오의 행패에 기가 질려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과 같은 지경이 되었다. 지옥은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눅이 든 상태이다.

㉡ 피문오는 지옥에게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재차 물으며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

㉢ 피문오는 지옥에게 왜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것인지를 캐물으면서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것이 피문오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 때문이라고 한 지옥의 말이 말재간을 부린 것이라며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다.

㉣ 피문오는 자신이 바보 멍청이로만 보이거나 지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피문오는 자신이

지옥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㉔ 피문오는 지옥에게 화를 내면서 지옥이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납득이 가게 답해 달라고 요구한다. ㉔에서 피문오는 자신이 지옥에게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까닭, 자신이 지옥의 자서전 대필 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똑똑하게 말해 주겠다고 한다.

7. 정답 ②

지옥은 회의가 없는 자서전은 ‘거인의 동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스스로 ‘회의’하며 ‘의식의 경화’를 경계할 줄 아는 것은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① 지옥은 최상윤의 확신에 찬 신념으로부터 느끼는 압박감, 회의가 없는 신념이 맹목적인 자기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최상윤의 자서전 대필을 하지 않았다.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③ 지옥은 어떤 사람의 결백, 엄격한 극기가 가식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에서 없을 수 없는 후회나 의구, 사람으로서 근멸시킬 수 없는 욕망에 대해 시인하지 않는 것은 가식이자 부끄러움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격한 극기로 결백하게 사는 것이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문오는 지옥에게 자신의 자서전 대필을 강요하며 욕박지른다. 지옥은 이런 사람의 자서전을 쓰면서 ‘밑구멍을 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반말 투로 작가를 욕박지르는 모습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⑤ 피문오는 자신의 양심 때문에 자서전 대필을 거부한다는 지옥의 말을 ‘알량한 양심’이라고 깎아내리고 자신은 그 들러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작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며,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강요하는 피문오의 이런 모습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8. 정답 ①

피문오가 ㉔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서전이나 회고

록을 쓰는 것이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를 고치는 일, 채권을 파는 일,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을 사들이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② 지옥은 남의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일을 하는 인물이다.

③ 피문오씨는 지옥이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

④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들 고칩시다아- 채권 삽니다아-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 삽니다 아- 자서전이나 회고록들 쓰십시다아-”라는 말을 통해 피문오가 자서전 대필과 상행위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피문오는 자서전 대필로 돈벌이를 하면서 양심을 이야기하는 지옥을 조롱하고 있다.

서지정보

저자 이민주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5021-0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3.05.12

가격 1,500원

값 1500 원



ISBN 979-11-377-5021-0 (PDF)